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 공생원 윤학자 여사 탄생 100주년

목포서 ‘UN 고아의 날’ 제정 결의대회

29~31일 서울·광주·일본서 기념행사 다채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윤학자(일본명 다우치 치즈코 1912~1968·사진)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과 목포, 광주, 일본 교도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윤 여사는 목포와 인연이 깊다.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는 부친을 따라 목포에 내려온 윤 여사는 여학 교를 졸업하고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였다.

2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박원순 시장,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등이 참여하여 ‘세계는 지금’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



에는 시오타니 요시코(전 구마모토 지사), 박경서(이화여대 석좌교수)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30 일에는 같은 장

소에서 사회공헌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되며 오후 7시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기념식과 전야제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1시 목포시민체육센터에서 유재건(한국 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씨의 사회

로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 및 선언대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이희호 여사와 오부치 치즈코(오부치 데이조 전 총리 부인), 오카자키 세이야(일본 고치시 시장)씨 등이 참석한다.

한편 12일 오후 8시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는 ‘세계 고아의 날’ 기금 마련 어울림 음악회가 열린다.

주금자·박계·김미옥·조민영·김도연·이상록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15일에는 일본 교도 고향의 집에서도 공동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단기 4345년 개천절 단군대제 봉행

단기 4345년 개천절을 맞아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 공원내 단성전에서 광주 국조송모회원들이 단군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 재배, 경지면적 30%까지 확대”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늘리기 위해 밟았고 나섰다. 전국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올해 인증 목표(9만3000㏊·경지면적의 30%) 달성을 위해 남은 10일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보리·밀·무·배추·마늘·양파 등 지역별 특화작물과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대상지를 조사해 인증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나주에서 도내 각 시군 및 나주시 읍면동 관계공무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대책 협

의회를 열었고, 이달 초에는 시군 부단체장들과 보고회도 열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을 도정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친환경농법 및 농자재를 개발, 보급 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제초제 대신 새끼우렁이 농법을 보급해 경영비 절감은 물론 무재초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성과도 컸다. 지난해 도내 전체 쌀 소득이 1000억원 가량 늘었으며, 전남의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은 전국적으로 6.

1% 줄어든 반면 전남은 2010년(2763만5000원)보다 10.1% 오른 3042만9000원이었다. 농가부채의 경우 전남은 2010년(2021만6000원)보다 17.3% 줄어 전국 감소율(4.3%)과 큰 차이를 보였다.

친환경농업으로 생태 환경도 되살아나고 있다. 농약 사용량이 줄면서 멸종위기생물이었던 긴꼬리투구새우와 환경지표 생물인 흰색깔따구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지난해 광양시 등 14개 시군 28곳에서 발견됐다. 이는 2009년보다 15곳이 늘어난 수치다.

성과도 컸다. 지난해 도내 전체 쌀 소득이 1000억원 가량 늘었으며, 전남의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간시설과 관외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라지고, 음식물 사료화 허율 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t당 삼능음식물사료화사업소에는 6만5800원, 관외시설에는 6만5000원, 성주환경에는 6만4000원을 지급해 왔다.

반면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은 t당 4만5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제2음식

물자원화 시설은 4만5000~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클린 로드 시스템’ 하루 2번씩 미세먼지 제거

광주시가 매일 두차례 이상씩 도심 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클린 로드 시스템(Clean road system)’을 도입한다. 시민건강은 물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광주에서 열리는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친환경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까지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살수차량과 진공흡입차량 18대를 구입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차량은 폭 12m 이상 도로의 먼지를 하루 2차례 이상 제거해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을 하게 된다.

물은 분사해 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살수차량은 여름철엔 도로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며, 진공흡입차량은 가정의 진공청소기와 같이 도로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흡입해 제거할 수 있다.

시는 또 광주의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의 오염분이 가장 많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엔진 개조, 배연 여과장치 부착)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非한센인 소록도 퇴거 추진 논란

복지부, 배우자·자녀 22명 격리 결정…이언주 의원 “반인도적 행위”

정부가 소록도에 거주하는 비(非)한센인에 대해 퇴거 조치를 추진하자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575명과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22명의 비한센인 가족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국립 소록도병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이 마을의 비

한센인은 운영규칙을 위반해 동거해온 것이며 이들에게 의식주가 근거 없이 무상 지원되고 있다”면서 “감염 가능성을 판단해 거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소록도병원 마을에는 한센인과 거주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한센인이 아닌데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소록

대교가 개통된 2009년부터는 비한센인의 마을 거주가 11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빛복지협회 관계자는

“치료받고 있는 한센인은 다른 사람

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라며 “복지부가 한센인에게 주고 있는 의식주 지원금이 소록도의 비한센인 증가로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22명에 불과한 한센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동거인과도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비한센인의 소록도 마을 거주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라”

광주·전남 추진본부 결성

광주·전남 농민연대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관찰하기 위해 추진본부를 발족한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광주·전남 추진본부 발대식을 갖고 각 단체와 정당의 참가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민연대는 “공공비축미 시가 매입으로 쌀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농민들은 소득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해마다 평균 1조9110억원을 투입했지만 쌀농가는 이명박 정부 때만 11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추곡수매제 폐지를 비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직접사업으로 배추와 무 계약 재배 물량을 23%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주요 품목을 수매할 계획”이라며 “배추, 마늘, 고추, 품, 메밀 등을 수매하는 등 정부도 인정하는 국가수매제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 전량 자체 처리

제2자원화시설 내년 4월 완공

광주시는 내년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0년 착공한 광주시 서구 유촌동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내년 4월에 완공돼 그다음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의 1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300t 정도다.

광주시는 1일 평균 450t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데 그동안 광산구 동곡동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150t, 민간시설인 삼능음식물자원화 사업소에서 200t, 화순과 담양 등에서 100t, 나머지는 양과동 퇴비생산업체인 성주환경에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1, 2자원화 시설에서 1일 450t 안팎을 처리하면

시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t당 삼능음식물사료화사업소에는 6만5800원, 관외시설에는 6만5000원을 지급해 왔다.

반면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은 t당 4만5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은 4만5000~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매각 공고

입찰 번호	소 재 지	면 적(㎡)		용도(현용도)	최저입찰가격(원)
		토 지	건 물		
1	광주 북구 북2동 195	416.5㎡(126평)	43평	목조(가구)	1,380,292,000
2	광주 동구 궁2동 56-2	205㎡(62평)	424.67㎡(128평)	음식점/사무실	535,035,000
3	광주 동구 흥덕로 41-3, 3-11	261.2㎡(79평)	1,112.3㎡(336평)	점포/사무실	1,315,907,000
4	광주 남구 흥덕동 15-2	175㎡(54평)		주차장	153,080,000
5	광주 남구 흥덕동 1157-8, 1157-17	1,468㎡(444평)	3,282.3㎡(939평)	주차장	3,720,008,000
6	광주 동구 대인동 85-6, 85-1, 85-7, 86-3	786.8㎡(238평)	12m (4평)	주차장	896,952,000
7	광주 동구 흥덕동 30-4, 30-7, 30-8, 30-21	320m²(96.3평)	907.4m²(274.3평)	점포	2,346,157,000
8	광주 동구 흥덕동 10-3	244.5㎡(73.9평)	244.59㎡(73.9평)	점포	483,243,000
9	광주 동구 대인동 100-3	281㎡(85평)	192.4㎡(58.2평)	점포	411,948,000
10	전남 나주시 남대동 112-2	959㎡(290평)	231.2㎡(69.9평)	점포	404,636,000

*부과세 별도

– 일반경입(단독임대 유료)

3. 입찰 참가 서류

가. 개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나.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다. 공동·인정침가신청서류(